

금융·택배·배달... 지역 밀착형 생활플랫폼 자리매김

편의점 시대

편의점만 있으면 24시간 OK

CU 24시간 무통장 송금 서비스
GS25 은행 업무협약, 금융 강화
이마트24 요기요 통한 배달진행
세븐일레븐 생활·위생용품 배달

편의점이 1인가구의 주요 소비 채널로 자리잡으면서 '생활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금융서비스, 택배, 배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다.

이제는 편의점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도 있고, 공인인증서나 본인 명의 은행 계좌없이 '무통장 송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은행 문 닫아도 걱정 없어

CU는 송금 애플리케이션 '센드(Send)'와 손잡고 24시간 편의점 무통장 송금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 서비스는 센드 앱을 설치하고 회원가입을 한 후 이용할 수 있다. 앱에 받는 사람 계좌를 입력하면 송금 바코드가 생성되는데 이를 점포 근무자에게 제시하고 액수를 현금으로 전달하면 입금이 완료된다.



장호준 SC제일은행 리테일금융총괄본부 부행장(왼쪽)이 김종수 GS리테일 MD본부장(오른쪽)과 MOU 체결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GS25

해당 서비스는 계좌이체 방식이 아닌 현금을 계좌로 이체하는 서비스로, 기존 송금 앱과 달리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가 없는 외국인과 청소년 등도 이용할 수 있다. 특정 시간에 문을 닫는 은행과 달리 365일 24시간 전국 CU에서 이용 가능해 접근성이 뛰어난 것도 강점이다.

GS25도 여러 은행과 업무협약을 맺으며 금융 서비스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최근에는 SC제일은행과 함께 ATM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확대했다. GS25는 총 점포 중 85%가량인 전국 1만1800여 점포에서 ATM을 운영 중이다. 이는 업계 최대 수준으로 지난해 한해 입출금 및 이체 금액은 총 6580만 건, 연간 거래 금액은 11조 원



이마트24는 올 초부터 전국 35개 직영점에서 요기요를 통해 배달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마트24

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SC제일은행과의 제휴로 GS25에서 출금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은행은 신한, KB국민, 우리, 광주, 저축은행중앙회, K뱅크, 카카오�뱅크 등 8곳으로 늘었다.

GS25는 생체 인식 기능과 함께 계좌개설, 카드 발급 등 비대면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스마트ATM'도 현재 3600대에서 올해 5000대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배달 시작하니까 매출도 ↑

편의점은 최근 배달 격전지로 떠올랐다. 편리함을 추구하고 비대면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편의점들이 앞다투어 배달서비스를 도입한 것이다. CU는 지난해 4월 요기요와 손잡고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난해 말까지 분기별 평균 22%로 가파른 매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배달 서비스 가능한 점포도 지난해 7월 기준 2000점에서 이달 기준 3000점으로 늘어났으며 올해 상반기 5000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GS25도 허니비즈 펄프, 요기요와 제휴해 상품 배달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쿠팡이츠와 손잡고 배달영역을 확대한다. GS25와 쿠팡이츠는 이달 초부터 서울 강남·강서·관악·광진·서대문구의 7개 직영점에서 과일 텃 테스트를 시작했다.

이마트24도 올 초부터 전국 35개 직영점에서 요기요를 통해 배달 서비스를 하고 있다.



CU는 지난해 4월 요기요와 손잡고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다. /BGF리테일

세븐일레븐 역시 이달 초 먹거리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다. 국내 대표 배달앱 '요기요'와 IT 기반 물류 스타트업 메시코리아 '부릉'과 제휴해 도시락, 디저트, 즉석푸드, 가정간편식(HMR), 생활 및 위생용품 등 330여종 상품에 대해 배달 서비스를 진행한다. 여기에 수산물 전문 O2O 서비스 스타트업 '바다드림'과의 제휴를 통해 '회 주문접수 서비스'를 시작했다.

업계관계자는 "인구구조변화가 편의점 성장에 영향을 미친 것 외에 '1인가구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20대가 편의점을 이용하는 경향이 높은 데다 접근성이 좋고, 취급하는 상품, 서비스도 많은 게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코로나 새 국면 진입... 2차, 3차 감염 대비를”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 бри핑

29·30·31번 환자 감염원 파악 중 우한발 감염자 통해 다른 유행으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이 국내에서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은경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18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국내외 상황을 반영할 때 코로나19 발생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국내에서 어제와 오늘 여행력이 없는 환자가 3명 나왔고 아직은 역학적 연관성을 단정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저희가 사례정의를 확대하고 많은 검사를 시행하면 유사한 환자가

보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국면'이라고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홍콩과 싱가포르, 일본, 태국, 대만 등 해외에서는 최초에는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환자와 환자의 지인들, 밀접접촉자 중에서 환자가 발생하는 양상이었다가 2월 중순경부터는 지역사회의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은 환자들이 보고되고 있다”며 “우한발로 시작된 유행이 2차, 3차 감염자를 통해서 또 다른 그런 유행으로 진행되는 그런 국면”이라고 설명했다.

◆29·30·31번 환자 “감염원 파악중”

보건당국이 최근 잇따라 확진된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코로나19 환자들의 감염원 추적 조사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중대본은 이날 29·30·31번 환자의 감염원을 찾기 위해 발병일 기준 2주간의

행적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이들이 2주간 지역사회에서 국외 위험지역에서 왔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한 적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정은경 중대본 본부장은 “이분들의 잠복기를 봤을 때 2주 안에 어떤(감염원) 노출이 있었는지 보기 위한 조사”라며 “(2주라는 기간은) 무증상 감염 부분과 관련 있는 설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접촉자 가운데) 몇분은 검사를 진행해서 음성으로 확인됐다”며 “어르신이다 보니 기억에 의존해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세부적 동선은 위성항법장치(GPS) 등 다양한 경로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유엔해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한국외국어대학교를 방문해 코로나19 관련해 한국인 학생과 외국인 유학생들을 직접 만나 중국인 유학생 기숙사 수용 문제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코로나 예방수칙 위반 유학생에 불이익”

교육부 대학 가이드라인 추가 단계별 관리방안·휴학권고 등

대학 개강을 앞두고 중국 유학생 유입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교육부가 코로나 예방수칙 등을 위반한 유학생에게 학교가 불이익을 주도록 대학에 권고했다.

교육부는 18일 '코로나19 대비 대학의 체계적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마련했다. 중국에서 입국하는 학생의 단계별 관리 방안과 미입국 유학생에 대한 휴학 권고 등이다. 그동안 유학생 관리를 대학 자율로 하면서 대학별 관리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가 나오자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대학은 본부차원에서 총고라대 응체계를 구성하고 유학생 입국 전부터, 입국시, 입국후까지 단계별로 준수해야 할 학사사항, 생활지도, 건강상태 모니터링 등을 하고, 지자체와 유관기

관과 핫라인을 구축해 학생 건강 보호와 감염증 차단에 위한 협력을 추진토록 했다.

입국전에는 주요 학사사항과 등교금지 방침 등을 사전에 명확히 안내하고 입국 예정일과 기숙사 이용 등 숙박계획 등을 확인토록 했다. 입국예정일이나 국내 거주지가 확정되지 않았고 비자 발급도 지연돼 국내 입국이 어려운 경우엔 1학기 원격수업을 적극 안내하고 휴학도 권고하도록 했다.

입국 시에는 즉시 학교 담당자에게 보고토록 하고, 국내 거주지 재확인 등 우선이나 문자 연락체계를 구축토록 했다. 입국했다면 14일간 등교중지도토록 하고 1일 1회 이상 건강상태를 확인하도록 했다. 등교 중지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된다. 기숙사 입실은 필요한 학생을 중심으로 배정하고 1인1실 배정, 도시락 제공, 세탁물 수거와 개별 세탁 등 타인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조치를 마련토록 했다. /한용수 기자 hys@

코로나사태 메르스 넘어서... 마스크 매출 67.6% ↑

CU 감염병 유행기간 상품매출 분석 소비자들 코로나에 더 민감하게 반응 중 대규모 감염사태에 학습효과 작용



고객이 CU에서 마스크를 구매하고 있다. /BGF리테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이 지난 2015년 메르스 때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CU가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 기준 약 한달(1월 20일~2월 16일)간 주요 상품들의 점당 평균 매출을 메르스 때 같

품이 된 마스크의 올해 매출이 67.6%나 더 높았다.

같은 호흡기 감염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올해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다.

아직 국내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메르스 당시 약 20%에 이르는 높은 치사율과 최근 중국의 대규모 감염사태에 대한 학습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신원선 기자